

-(으)ㄴ/는 탓에

~한 탓에 (그래서 결과가 나빴다)

책임을 돌리는 이유 표현입니다. 탓은 ‘잘못’이라는 뜻이므로 결과는 늘 달갑지 않은 일이며, 다음과 정반대입니다: 덕분에.

■ 결합 방법

상황	형태	예
모든 명사	명사 + 탓에	날씨 탓에
동사, 현재	-는 탓에	오다 → 오는 탓에
형용사	-(으)ㄴ 탓에	바쁘다 → 바쁜 탓에
완료된 동작	-(으)ㄴ 탓에	늦은 탓에
ㄹ 받침	ㄹ 탈락	만들다 → 만드는 탓에
결과는 반드시	부정적	좋은 결과에는 덕분에

■ 언제 쓰나요

명사에는 탓에를 바로 붙입니다: 비 탓에, 날씨 탓에. 절에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 동사는 -는 탓에, 형용사는 -(으)ㄴ 탓에, 완료된 동작은 -(으)ㄴ 탓에를 씁니다. ㄹ 받침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

결과는 반드시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탓은 책임을 돌리는 대상이므로, 좋은 결과에 탓에를 쓰면 한국어 화자에게 틀리게 들립니다.

잘못을 돌리는 말이므로 비난하는 어조를 뿜 수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 남을 탓하지 말라는 뜻으로, 같은 말을 동사로 쓴 것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중립적인 이유에는 -기 때문에가 무난합니다.

■ 예문

- 1 갑작스러운 비 탓에 행사가 취소됐어요.
- 2 늦게 출발한 탓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 3 요즘 바쁜 탓에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 4 준비가 부족한 탓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 5 서둘러 만드는 탓에 실수가 잦아요.
- 6 길이 미끄러운 탓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 비교

-(으)ㄴ/는 덕분에
정확한 짝입니다. 덕분에는 좋은 결과를 공으로 돌리고, 탓에는 나쁜 결과를 탓합니다. 결과가 어땠는지에 따라 고릅니다.
비 탓에 취소됐어요. (타함) / 도와주신 덕분에 잘 끝났어요. (공으로 돌림)

-기 때문에
때문에는 중립적이어서 어떤 결과에도 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면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비 때문에 취소됐어요. (중립) / 비 탓에 취소됐어요. (비를 탓함)

-는 바람에
역시 나쁜 결과를 낳지만, 잘못을 돌리기보다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원인일 때 씁니다.
늦은 탓에 놓쳤어요. (늦은 내 잘못) / 차가 막히는 바람에 놓쳤어요. (교통 체증이라는 뜻밖의 일)

■ 주의

- ✗ 열심히 공부한 탓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탓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결과에는 덕분을 씁니다.
- ✗ 서둘러 만드는 탓에 실수가 많아요.
○ 서둘러 만드는 탓에 실수가 많아요.
ㄹ 받침 어간은 관형형 체계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
- ✗ 부장님 탓에 일이 늦어졌습니다.
○ 여러 사정으로 일이 늦어졌습니다.
탓에는 대놓고 잘못을 돌립니다.윗사람을 원인으로 지목하면 직접적인 비난이 되므로 중립적인 표현이 현명합니다.